



멕시코 자동차보험 시장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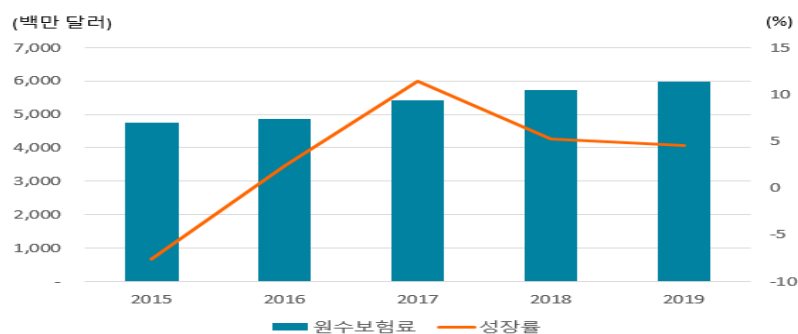
장윤미 연구원

요약

멕시코 정부는 2019년부터 연방 고속도로 및 교량을 운전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민사책임(대인·대물) 보험 가입 의무화를 시행함. 멕시코에서는 약 70%에 이르는 차량이 보험에 미가입한 상황이며 이는 보험 가입여력 부족, 보험에 대한 인식 부족 등에 기인함.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자동차보험은 최근 5년간 연평균 5.8%로 성장하고 있으며,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화와 함께 시장 확대가 예상됨

- 멕시코 보험시장은 세계 25위 규모이며 자동차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보험시장의 약 20%로 최근 5년간 연평균 5.8% 성장함
- 멕시코 보험시장 규모는 한국의 약 16.9%로 전 세계 25위, 중남미 내에서는 브라질에 이은 2위이며, 멕시코의 보험밀도¹⁾는 약 240달러인 것으로 나타남²⁾
- 2019년 멕시코 자동차보험 시장규모는 약 60억 달러이며 멕시코 전체 보험시장³⁾에서 자동차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임
- 자동차보험 시장은 최근 5년간(2015~2019년) 미국달러 기준 연평균 5.8%로 성장하였는데, 이는 전체 보험시장 성장률(5.3%)보다 다소 높은 수준임

〈그림 1〉 멕시코 자동차보험 시장 원수보험료 및 성장률 추이(2015~2019년)



주: 멕시코의 높은 환율 변동폭을 고려하여 고정환시세(constant exchange rate) 대신 현행환시세(current exchange rate)를 적용
 자료: 멕시코 보험감독기관 CNSF(National Insurance and Surety Commission) 보험통계 활용 후 저자 작성

- 1) 국민 한 사람당 일년에 납부하는 보험료 평균을 의미함
- 2) Swiss Re(sigma-explorer) 2019년 기준
- 3) 멕시코 전체 보험시장은 생명보험, 연금보험, 상해질병보험, 손해보험의 합으로 구성됨

- 멕시코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중이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 가입률이 낮는데, 멕시코 정부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자동차보험의 성장성 확대가 예상됨
 - 멕시코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 기준으로 세계 7위, 중남미 3위를 기록하는데 멕시코 5~29세 인구 사망 원인 중 1위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임⁴⁾
 - 멕시코는 주요 중남미 국가 내에서도 자동차보험 가입률이 가장 낮아 10대의 차량 중 7대가 보험 없이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⁵⁾
 - 멕시코 정부는 2019년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계의 갑작스러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가입을 전면 의무화함
 -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라 멕시코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증가 추세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멕시코 정부는 2014년 처음으로 자동차보험을 일부 의무화한 후 2019년 전면적으로 확대하였고, 이에 따라 멕시코 연방 고속도로 및 교량을 운전하는 모든 차량은 제3자에 대한 민사책임(대인·대물)보험에 가입해야 함
 - 멕시코 정부는 2014년부터 자동차 연식이 최근이고 고가인 자동차에 대해 우선적으로 자동차보험을 의무화한 후 연식 및 가격 기준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왔으며, 2019년 가입 대상을 모든 차량으로 확대함⁶⁾(〈표 1〉 참조)
 - 의무화가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은 제3자에 대한 민사책임(대인·대물)에 한해서이고 멕시코 연방 고속도로 및 교량을 운전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함
 - 자동차 민사책임보험은 운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제3자의 재산 피해, 부상 또는 사망을 보상하며 대인의 경우 보험 가입금액이 최소 10만 페소(약 550만 원), 대물은 최소 5만 페소(약 275만 원)임

〈표 1〉 멕시코 자동차보험 의무화 실행 단계

시행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차량 제조년도	2011년 이후	2008년 이후	2005년 이후	2002년 이후	2000년 이후	모든 모델
차량 가격	186,732페소 (약 1,040만 원)	162,255페소 (약 900만 원)	135,690페소 (약 750만 원)	117,467페소 (약 650만 원)	102,388페소 (약 570만 원)	모든 가격

자료: 멕시코 정부 관보(<https://www.dof.gob.mx>) 2014년 3월 19일 발표

- 의무보험 미가입 시 자동차 소유자에게 벌금이 부과되며,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의무화가 적용되는 민사책임보험 외에도 특약을 통한 추가적인 보장이 가능함
 - 의무화가 적용되는 민사책임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벌금은 각 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나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의 20~40일분에 해당하며 최대 4,100페소(약 22만 원)에 이름⁷⁾

4) <https://www.insp.mx/avisos/4761-seguridad-vial-accidentes-transito.html>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은 양호한 수준임. 2020년 멕시코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54.5%, 사업 비율 30.6%, 합산비율은 85.1%로 나타남; 멕시코 보험감독기관 CNSF(2020. 12), "Boletín de Análisis Sectorial", p. 20

5) <https://www.inese.es/mexico-es-uno-de-los-paises-de-latinoamerica-con-mas-autos-sin-seguro/>

6) 2014년 3월 19일 멕시코 연방 도로, 교량 및 고속도로법(ley de caminos, puentes y autotransporte federal) 개정안 참고

- 멕시코의 자동차보험은 민사책임만 보상하는 민사책임형(responsabilidad civil)과 민사책임 이외의 차량에 대한 도난, 재물 피해 등을 추가로 보상⁸⁾하는 제한형(limitada) 및 확장형(amplia)으로 구분됨
- 멕시코 보험가격 비교 사이트인 Ahorra Seguros⁹⁾ 및 Rastreador¹⁰⁾에서 회사별로 보험상품을 비교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차량 모델, 연식, 차량 등록 도시, 수입차 여부, 담보 범위 등에 따라 다양함
- 연간 보험료는 민사책임의 경우 1,500~2,800페소(약 8~15만 원), 제한형은 3,000~7,000페소(약 16~38만 원), 확장형의 경우 10,000~13,000페소(약 55~72만 원) 정도임¹¹⁾

○ 멕시코에서는 약 70%에 가까운 차량이 보험에 미가입한 상황이며 낮은 소득으로 인한 보험 가입여력 부족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나 장기적 안목에서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가 상존함

- 약 70%에 가까운 차량이 보험료가 비싸다는 이유로 혹은 기타 이유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음¹²⁾
 - 멕시코 성인인구(18~70세)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로 '소득 문제'(25.4%), '높은 가격'(16.6%), '보험 가입 불필요 혹은 무관심'(28.8%)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됨¹³⁾
- 멕시코 전체 근로자의 약 50%가 비공식 부문 취업자로¹⁴⁾ 이들은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멕시코 최저임금¹⁵⁾인 일당 7달러를 받는 경우가 드물지 않는데 소득 불평등이 심해 지니계수가 높음(0.45)¹⁶⁾
- 한편 코로나19 이후 미국경제 성장에 기댄 빠른 거시경제 회복과 자동차보험에 대한 인식 개선, 선진국 대비 높은 출산율 등은 장기적 안목에서 자동차보험 시장 성장에 긍정적일 수 있음

○ 멕시코 자동차보험 시장은 주로 멕시코 현지 기업과 유럽계 기업이 주도하고 있으며 아시아계 보험회사의 점유율은 미미한 수준임¹⁷⁾

- 2018년 기준 멕시코에서는 약 40여 개의 회사가 자동차보험을 판매하고 있음¹⁸⁾
- 2019년 자동차보험 분야 상위 20개 기업 중 멕시코 보험회사 Quálitas와 Grupo Nacional Provincial가 각각 21.6%와 15.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멕시코 보험회사 점유율은 60.2%로 나타남
- 외국 보험회사 중에는 스위스계인 Chubb Seguros México(12.7%), 프랑스계인 AXA Seguros(9.2%), 독일계인 HDI Seguros(7.1%)의 점유율이 높음
- 한편 일본의 Tokio Marine과 Sompo는 멕시코 자동차보험에서 0.1% 이하의 시장점유율을 보이지만 브라질에서

7) <https://www.motorpasion.com.mx/industria/seguro-auto-obligatorio-todo-mexico-para-circular-carreteras-federales>

8) 이 밖에도 동승자 의료비용, 법률비용, 자기차량손실, 자기부담금 환불, 대체 차량 제공, 견인 서비스, 반려동물 의료비용, 해외 운전 사고와 같은 광범위한 내용을 추가 보장할 수 있음

9) <https://ahorraseguros.mx/>

10) <https://www.rastreador.mx/>

11) <https://ahorraseguros.mx/seguros-de-autos/> 및 <https://protec.com.mx/cuanto-cuesta-seguro-auto/> 종합

12) <https://www.infobae.com/america/mexico/2020/01/18/70-de-autos-en-mexico-no-tienen-seguro-aunque-es-obligatorio/>

13) 멕시코 정부(2018), "ENIF(Encuesta Nacional de Inclusion Financiera)", p. 148; 멕시코 성인인구(18~70세)를 대상으로 조사함

14) <https://economia.nexos.com.mx/la-otra-cara-del-empleo-en-mexico-informalidad-y-subempleo-durante-el-covid-19/>

15) https://mexico.as.com/mexico/2021/01/09/actualidad/1610159097_265454.html

16) 세계은행 2018년 자료 기준

17) CNSF(2019), "Actualidad en Seguros y Fianzas #114, Diciembre 2019"

18) CNSF(2018), "Anuario Estadístico de Seguros y Fianzas 2018", p. 7

는 각각 9.75%와 2.6%의 시장점유율을 보이며 비교적 높은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음¹⁹⁾

- 중남미 시장으로 보험시장 다변화를 시도할 경우 멕시코 자동차보험도 검토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멕시코 거시경제 상황과 자동차보험 관련 여러 사업적 변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임

19) Sincor SP(2019), “Ranking das Seguradoras”, p. 7; 두 회사는 브라질에서 1959년부터 보험업을 운영하며 6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브라질에서 사업을 운영해 옴